

야간조명 뇌물 수수 여수시 前 국장 영장 시의원 10명에 뇌물살포 의혹

오현섭 시장 소환여부 촉각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 여수시청 전 간부가 업자로 부터 받은 돈이 지역정가에 흘러들 어간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8일 야간경관조명사업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여수시 국장 김모(여·5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여수시청 도심개발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야간경관조명 업체인 나이트피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전 국장은 나이트피어 대표 남모(51)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자신이 1억6500만원을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4000만 원은 오현섭 시장의 측근인 J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또 당시 김 전 국장이 건넨 돈을 여수시의회 의원 10명에게 300만~1000만원씩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

모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무실 소파에서 500만원이 든 서류 봉투를 발견해 신고함에 따라 여수경찰이 해당 의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씨가 시의원들에게 실제 돈을 전달했는지와, '뒷돈' 전달 과정에서 여수시 관계자의 연루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오 시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국장은 야간조명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초 사직된 뒤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22일 해남군이 발주한 땅굴 경관조명공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업자 3명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총식 전 해남군수를 구속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2010 핑크리본 사랑마라톤대회'가 20일 오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10km와 5km 구간에서 3000여명이 참가해 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핑크리본 마라톤대회는 유방 건강의식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광주, 서울, 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

안전벨트 경고에 ... '전화위복'

'미착용' 딱지 20대 여성 다음날 전복사고 '말짱'

전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된 20대 여성이 다음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안전벨트를 맨 덕분에 큰 부상을 입지 않아 화제다.

지난 19일 광주에서 자신의 집 목포로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던 서모(여·24)씨. 동광산(1)에 진입한 서씨는 때마침 '안전벨트 착용 단속'에 나선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문모(41)경사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이 발각돼 3만원짜리 범칙금 딱지를 떼었다.

서씨는 다음날인 20일 오후 3시 25분 자신의 마티즈 차량에 여동

생(22)을 태우고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합평 나비터널 우회전 커브구간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서씨와 동생은 머리 등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을 뿐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전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딱지를 떼인 뒤 단단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 때문.

출동한 문경사와 다시 만난 서씨는 "전날 3만원짜리 범칙금 딱지를 떼던 덕분에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것이 큰 사고를 막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아들 성적 조작 女교사 복직 논란

소청위 정직 3개월로 감경

같은 학교에 다닌 아들의 성적을 조작해 해임됐던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본보 2월 26일자 6면)가 정직으로 감경되면서 복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아들의 성적을 수차례 부풀린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지난 2월 해임된 A

교사가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교원소청위는 '시 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당연하다. 다만 A씨가 중학생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고 성적조작 이외에는 모범적인 교단생활 등을 해온 점' 등을 정상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 교육청 해임 직후 동구 모

학교로 전보됐으나 7월 중순까지 병가 상태여서 이후 복직이 가능하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6월 등 2차례에 걸쳐 2학년인 아들의 중간교사 답안지를 수차례 고쳐 성적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인 해임처리됐다.

A씨는 당시 시교육청 감사에서 "성적이 나쁜 아들을 생각해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일반계고 10곳에서 학생 33명이, 중학교는 50여명이 교사의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0대 女 아파트 단지서 괴한에 폭행 당해 중상

19일 새벽 광주 진월동

새벽 시간대 30대 여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괴한에게 성추행과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범행 장소에는 방범용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아파트 경비원은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생활지안이 매우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산책 중이던 K(여·35)씨가 괴한으로부터 수십차례 폭행을 당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K씨는 경찰과 119대원에 의해 광

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턱뼈가 부러지고 눈 주위에 멍이 드는 등 얼굴을 크게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수학 과외교사인 K씨는 이날 밤 과외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놀이터는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등 평소 비행 장소로 활용됐지만 CCTV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현장과 10m 떨어진 곳에서 근무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은 범행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새벽 시간대 도심 속 치안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친구 딸 성폭행

새벽까지 함께 술 마신 뒤 출근 확인하고 범행

광주동부경찰은 20일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이모(37)씨를 성폭행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동구 소대동 친구 A(36)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딸 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새벽 6시까지 환경미화원인 A씨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A씨가 출근한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경찰에서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옆방에서 자고 있던 남동생(9)에게 참피해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이전에도 A씨와 술을 마신 뒤 B양을 성추행한 적이 있다는 진술과 B양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택시기사 택시서 숨진채 발견

20일 오후 12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모 회센터 건너편 4차선 도로 상에 주차된 영업용 택시에서 기사 박모(53)씨가 운전석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발견 당시 45도로 눕혀진 운전석에 돌아누운 상태에서 숨져 있었으며, 택시기사 복장과는 달리 흙이 묻은 장화를 신은 채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양수현기자 yang@

"길거리 속옷차림" 핀잔에 주먹다짐

○내연녀와 싸운 뒤 함정에 속옷차림으로 길거리에 누워있던 40대 이를 지켜본 행인이 서로 주먹을 휘둘러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최모(40)씨는 20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길거리에서 내연녀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길거리에 누워있었는데 길을 지나가던 황모(47)씨가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다 있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시비 끝에 서로 폭행했다는 것.

○한편 최씨의 내연녀는 자신의 차로 황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그대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중.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공무원

**2010년 전반기 교육행정직 122명 모집에
본 학원 출신 88명 합격 (합격률 72%)**
10년 연속 광주·전남 최대 합격자 배출
합격자 1명당 합격자비율 약 70% 상회

합격실명제

1차: 6월 22일 오후 3시~
2차: 6월 26일 오후 3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강료도 할인 받아 합격하자!

특별이벤트1
(수강생 5명당 1명)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특별이벤트2
합격생 4명당 무료 수강료 1명 지급

개강 7월 1일

PEET/ MEET/ DEET

약대대학 의대대학 치대대학

전국 최대 학사학위 전문 강사진이 펼치는 체계적 학습 프로그램

적중예상 문제풀이

총정리 문제풀이

기초이론만

기초이론만

토익/토플

토익/토플

개강 7월 5일(매주)

서울고시학원

1514-4580
sgs.ac.kr

MDPass 의학원

(광주) 283-5453
mdpasa.co.kr